

현대건축의 표현양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xpressive Aspects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이 근 태*
Lee, Keun Taek

Abstract

This Study is to divide aspects broadly that can be suggested with eyes to contemporary issues through assertions of contemporary theorists, verify those on case studies, and search for criteria on the framework of composition on expression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As the proposal of this study, the unified approach through a deductive and inductive study in the light of humanism and design creativity can establish the built environment considering human-centered architecture.

I. 서 론

건축에 있어서 어느 특정시대를 논의하는 것은 그 시대관의 인식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현대사회의 변화는 근대의 산업사회에서 현대의 정보사회로, 성장위주의 사회에서 안정위주의 경제로, 르네상스 이후 전개된 분석적 사고에서 종합적 사고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더불어 현대건축에서 보여지는 Human Scale에 의한 인간화 추세는 건축을 하나의 언어로 접근하려는 경향, 건축의 미학적 기준을 위해 생리적·정신적·심리적 기준을 토대로 접근하려는 경향, 건축을 문화적 연속성으로 추구하려는 경향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의 배후에는 모더니즘에 대한 공통된 관심과 현재상황의 인식이라는 변증법적 논리가 존재하고 있다. 현대건축은 '모던' (modern)에 대한 해석을 인간 실존에 바탕을 두고 건축표현을 보다 객관화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 레이트-모더니즘(Late-Modernism),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네오-모더니즘(Neo-Modernism), 해체주의(Deconstruction)라는 집단적 경향을 보이면서 '모던'을 주안점으로 현대의 변화추세를 표현하고 있다.

현대건축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원론과 복합성은 건축문제를 인간의 주체인식 관점에서 모색하는 과정에 나타난 결과이며 건축가의 접근방법에 있어서도 주체인식에 대한 문

* 상주산업대학교 건축공학과 전임강사, 공학박사

제를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려는데서 야기된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건축 표현의 접근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현대의 주안점으로 제시될 수 있는 사항들을 이론가들의 논리를 통하여 대별하고 사례작품을 통해 검증하므로써 표현의 구성체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II. 20세기 건축이론의 성격분석

1. 건축디자인의 발전과정

18세기 중반이후 서구사회는 하나의 통일된 문화를 향유하던 시대에 종말을 고하고 산업, 정치·사회혁명을 겪으면서 다원화의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과학분야의 발전과 계몽정신을 토대로 경제원리와 진보 개념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물질

적 진보가 윤리적 진보의 전 단계로서 전세계의 평화와 협동으로 통일시켜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타났으나 20세기 양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러한 신념은 변화하게 되었다. 건축분야에 있어서 근대시기를 기점으로 그 이전의 시기와 이후 시기의 두드러진 차이는 첫째, 시대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건축관의 문제, 둘째 의뢰인과 건축가(Client/Architect)의 관계, 셋째 건축표현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그림1)

2. 모더니즘의 재평가

근대시기는 새로운 생활과 사회체계를 수용하기 위해 좋은 건축의 조건을 활용하여 보다 인간에 근접한 건축표현을 전개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근대초기 다원론적 상황과는 달리 근대사회가 안고 있는 단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효용성의 측면이 부각되어 모더니즘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현대의 인본주의적 시각에서 모더니즘이 지녔던 성격을 인간과 표현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1950년대 후반부터 건축이론에 나타난 성격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인간에 대한 모델

가) 인간의 생리적 모델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정신'을 수용할 수단으로 산업을 제시하면서 "변혁의 시대에 있어 건축관과 대량생산으로 이루어진 주택의 구성요소들을 수정하고 비판적이고 객관적 관점에서 대량생산 주택인 '주택-기계'에 도달 해야한다"¹⁾고 주장한 Le Corbusier의 초기 이념과 '표준화와 대량생산의 사용을 통하여 주거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 Walter Gropius의 이념 등은 Christian Norberg-Schulz가 <Architecture: Meaning and Place>에서 주장하는 모더니즘 건축의 문제점인 '사물과 장소손실'로 인한 인간의 공동체감, 참여감, 개체성 등의 상실을 암시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시기	1750年代		1950年代 以後	
	<----->	<----->	<----->	<----->
특성별	근대이전	근대	현대	
시대관	우주론	인본주의 <-----> (과학화와 합리화) <-----> (인본주의·실증론)	실증주의	
사회구조	농경사회& 전제정치	산업사회& 자본주의	산업사회와 이데올로기의 공존	
디자인 문제해결모델	선례의 연구	·효용성의 기계 ·경제성의 자연 ·생의 본질로서의 자연	·역사적 선례와 지역맥락 ·인간인식구조 ·형식주의&절충주의	
의뢰인 범주	국가와 군주 및 지배계층	·중산계층 ·집단의의뢰인 ·의뢰인과 사용자분리	·부동산 개발업자 ·다양한 계층 성장 ·요구유형의 다원화	
표현이론	·수와 기하학의 비례이론	·기능주의 ·도상학 ·생명현상으로서의 기능주의	·인간요구 수용으로서의 의미이론	
표현이론 성격	·대상구성의 결정론 (객체이론)	·주요인식의 결정론 <-----> (주체이론)	·역사적 결정론 ·인간의식의 목적론	

(그림 1) 건축디자인 발전과정상의 특징

Le Corbusier가 <The Home of Man>에서 제시한 인간에 대한 모델은 인간 신체에 대해 시스템, 기관, 부분이라는 3가지 양상으로 표명하여 인간의 생물학적 모델과 강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시스템 유추에 대한 그의 관심은 근대도시의 여러 체계적 기능을 디자인으로 유도하기 위한 모델로서 제시하여 인간의 순환시스템을 도시 가로체계로, 두뇌를 도시 행정중심으로, 심장을 도시 상업중심으로, 하층부를 도시 하부에 있는 산업구역으로 해석하였으며, 인간신체를 순환이외에 '구조와 볼륨'으로 제시하여 구조는 기둥과 슬라브로 볼륨은 생활공간과 순환공간으로 해석하여 도미노(Domino)시스템의 기본모델로 제안하였다.

더욱이 근대 모더니스트들은 "인간이 문화적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 모두가 행복할 권리가 있으므로 인간의 동일한 요구인 풍부한 햇빛, 공기, 자연을 즐겨야 한다"²⁾고 인식하므로써 인간의 보편성 개념을 토대로 모든 개별적 차이가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인간에 대한 이러한 생물학적 모델은 주로 근대 집합주택 디자인에서 인간의 복지, 행복,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빛, 공기, 녹지를 부여하려는 태도로 나타나 넓은 개구부와 충분한 개방공간으로 표현되었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Si-grid Giedion은 <Space, Time and Architecture>에서 '세기 전환기에 대부분의 근대주의자들은 인간의 건강과 복지를 크게 증진시키는 건축을 주장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결국 모더니즘의 주장자들에 의해 제시된 인간 모델에 대한 해석은 인간의 생리적 요구와 안전성 요구로 인식하고 인간요구의 보편성을 주장하여 '자유'의미를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연속성 구성으로, '평등'사상을 균질의 공간구성으로 통일감을 부여하였다. 인간에 대한 이러한 모델은 감각 시스템의 부분들을 분리해서 고려하려는 한계와 인간을 단지 물리적 시스템으로 고려하려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으로 구성된 건축에서는 내부와 외부의 공간전이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인간의 개체성과 주택이 지니는 사회적 접촉의 장소역할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현대에 있어서 중요시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요구는 물리적 요인들보다는 사회적이고 상징적 요인을 본질적인 요구로 인식하려는 추세이다.

나) 집단생활로서의 소속감

산업혁명으로 나타난 도시 인구집중과 핵가족화, 부부노동자 등은 인간에 대한 해석의 원인이 되어 개인주거보다는 공동생활 공간에 대한 요구로 나타나 이러한 공동생활 공간구성을 모더니스트들의 주요 임무로 인식하게 되었다.

Le Corbusier와 Walter Gropius의 건축이론은 집단생활에 대한 개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Le Corbusier는 <Garden City>에서 '개인주거는 시간, 돈, 공동체감의 손실을 의미하고 교외생활은 수평적 확장으로 인해 재원의 손실을 의미하므로 교외가 단지 고립감을 조장시키고 인간의 집단정신을 파괴한다'고 주장하였고 <The City of Tomorrow>에서 '건물높이를 증가시켜 밀집된 인간을 수용하는 덜 밀집된 환경을 디자인하므로써 주거의 문제가 회복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제안한 고층아파트 주거유형은 그 당시 전세계 건축가들에게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는데 적합한 모델로 인식되어 산업화가 사회생활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경제적, 기술적 변화가 색다른 생활양식을 야기시킬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모더니즘 이론은 현대 시각에서 볼 때 공공의 사회생활을 강조하는 반면에 개인생활을 다소 덜 강조하고 집단생활의 영역을 확대시켜 개인공간을 구성하도록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모더니즘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전통적인 문화적 변수, 개별적 차이, 미적 선호 등과 같은 주제 입장으로서는 아니라 기계생산의 정신과 일치하는 생활공간을 추상화시켜 생활주기의 고려와 인간 보편성의 추상적 시각에서 집단 소속감을 구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기계·기술 모델의 표현

가) 기계론적 기능주의

모더니즘의 교리에 따르면 인간요구의 건축적 수용은 전통적이고 고유한 것의 거부와 진보적이고 새로운 기계적인 것의 사용을 의미하게 되어 대량생산과 표준화로 나타나 표현적이거나 연상적 효과를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므로써 데이터 수집에 형태를 맞추는 디자인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Form follows function)라는 기능주의 교리는 모더니즘의 주창자들에 의해 기능을 기계론적 논리로서 해석되어 '시각적인 형태 문제를 논리적으로 정량화될 수 있는 요구와 자원으로부터 연역될 수 있다'는 함축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막시스트인 Hannes Meyer는 1928년 <Bauen(Bauhaus, Vol.2 No.4)>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기능×경제라는 공식의 산물이다. 모든 예술은 구성적이므로 비기능적이고 모든 생활은 기능이므로 비예술적이다"³⁾라고 기술하여 건축을 측정가능한 양상으로 축소시키고 '기능×경제'라는 공식이 건축을 세속화시켜 기계론적 기능주의를 근대건축의 주요 양상으로 나타나게 하였다. 이러한 논리를 기반으로 인간요구에 대한 모더니즘의 방식은 20세기 문화생활의 여러 양상들을 수행할 것으로 인식되어진 기계문화에 대한 강조로 나타나 산업분야의 발전과 시간과 움직임의 연구와 더불어 인간을 일종의 기계로서 주시하게 되어 현대 Ergonomic 연구와 System 디자인에 토대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계몽주의 이래로 실체에 대한 모더니즘의 접근방법을 지배한 것은 논리와 과학적 사고에 대한 신념의 결과이며 분석과 정량적 계획으로 이루어진 모더니즘의 건물은 구체적인 일상세계와 실존적 의미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리적 환경은 주로 인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인간의 물리적, 감각적, 지적 능력을 연구하여 기계를 인간에 적합하도록 디자인하기 때문에 환경은 전체적이어

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대건축은 현상들 사이의 정성적 관계를 통하여 의미를 구성시켜 인간의 장소성을 회복시키려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나) 기술적 표현과 추상미학

모더니즘은 추상예술의 영향으로 20세기 건축 방향을 결정하고 건축사고의 주류를 통합하여 형식주의의 목적을 성취하였다. 모더니즘의 공통된 유사성은 기하학과 직각의 사용과 무절제한 디테일의 제거 등으로 나타났지만 모더니즘 건물에서 체험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디자인에 영향을 미친 기본적인 추상예술의 원리로 볼 수 있다.

"미래파 운동은 엘리베이터와 엔진과 같은 운동의 기계적 수단을 압도적으로 강조하여 건물 파사드를 기술미학의 찬미"⁴⁾로 나타내었고 입체파들의 움직임에 대한 시각은 전통적 공간개념을 동적인 개념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에서 여러 각도에서의 동시적 표현과 자유로운 공간 구성을 위해 공간 연속성을 주안점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신조형주의는 투명과 수직, 수평선과 기본요소의 강조를 통하여 요소주의와 넓은 유리영역의 사용에 의한 내부공간의 투명성과 내부와 외부공간의 상호침투를 표현하고 구성주의는 신재료의 사용을 통하여 요소들의 분절을 주안점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운동들의 공통점은 첫째 추상미학의 표현으로 '대상의 구상적 표현보다는 기계법칙의 산물과 예술가의 직관으로 인식하였다'는 점, 둘째 요소주의나 환원주의의 표현으로 원색의 사용, 기본요소, 기본형태에 대한 강조, 표현의 정직성, 형태의 단순성 등의 특성을 지닌 점, 셋째 유리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내부와 외부공간의 상호관입을 표현한 점, 넷째 수직과 수평선 강조로 나타난 점 등을 들 수 있다.

결국 모더니즘은 사회적 프로그램과 시대적 연구에 치중하므로써 형태의 이미지가 고유의 전체 이미지로 이해되어 자의식적 경우로 나타나 가벼운 유리피막의 상자형 물체형태와 유동하는 보편적인 공간형태로서 표현

되었다. 인간의 인식론적 관점에서 이러한 물체형태는 인간의 인식기준이 되는 시작과 끝에 대한 준거가 모호하고 공간형태에서는 유체역학적 의미에서 인간을 움직이는 미립자와 같이 다루므로써 인간의 근본적 행위의 기준인 목표와 인식을 위한 한정적 요소가 다루어지지 못한 점으로 인식되어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이러한 유토피아적 시각에 의문을 가하면서 새로운 시각의 운동과 사상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3. 20세기 후반 건축이론의 성격

모더니즘에 의해 추구된 인간에 대한 해석의 불만과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의 부각은 1950년대 이후의 건축 이론가와 디자이너를 자극시켜 모더니즘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20세기 후반 건축운동과 이론적 성격을 1950년대를 기점으로 비교·분석하면 표1과 같이 인간의 생물학적 모델을 확장하여 생리적 요구와 심리적 요구를 강조하고 의미 차원에서 이러한 요구들을 건축적 질에 대한 사고로 전환하고 있다.

區分時期	建築理論	主關心領域
1950년대以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t-Nouveau • Bauhaus • CIAM • Constructivism • De Stijl • Expressionism • Functionalism • Cubis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기계론적 견해 • 실증적 방법을 통한 인간연구의 객관화 • 인간의 생리적 요구를 수용한 건축계획의 시각화 • 인간요구에 대한 기술성취의 표현 • "합리적"이고 "직관적" 용어와 연계된 인간인식에 대한 태도
1950년대以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am Ten(x) • Environmental Design • Archigram • Brutalism • Philadelphia School • Post-Modern: Neo-Rationalism Neo-Reali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자율적 유기체에 대한 견해 • 인간을 건축산물의 주요 척도로서 간주 • 인간의 생물학적 모델의 확장으로 사회적, 심리적 요구의 표방 • 상징미학, 소속감, 개체성등이 여러 이론가들의 주관심사 • 인본적, 윤리적이란 용어와 연계된 인간인식의 태도

〈표 1〉 20세기 건축이론의 주관심 영역 비교

이러한 맥락에서 자연·환경과 인간 인식구조를 통합하고 모더니즘 시기의 편향된 시각을 수정·보완하려는 노력이 20세기 후반 건축이론가들과 디자이너들에 의해 전개되어 건축의 다양한 양상이 지적되면서 여러가지 의미이론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신-사실주의적 태도와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신-합리주의적 태도이다.

1) 신-사실주의 태도

C.Ray Smith는 〈Supermannerism〉에서 '현대 디자인과 건축의 맥락적 배경을 부여하려는 태도와 관련된 "Supermannerism"이 1960년에서 1970년 사이에 태동하였고 태도상의 특징을 애매함과 비정위성, 이지와 번덕, 대중적 상징의 수용, 역사주의와 장식, 중첩과 층화, 적합성과 개방성 등으로 간주하여 모더니즘에 대한 반향과 건축과 디자인에 고 현대시기로의 발전에 관한 것으로 인식하여 현대에서 점점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으로 칭해지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건축의 포스트-모던 형태가 세계 제2차 대전 후의 모더니즘보다 사회적이고 환경적 개혁과 연계되어 과거 아르누보, 바우하우스, 아르데코, 19세기 미국의 쉐글 양식(Shingle style) 건물과 유사하다"5)고 주장하여 급진적 시각의 변화를 새로운 디자인 운동으로 보았으며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더니즘이 확립한 디자인의 엄격한 형식을 제거하려는 시도와 아카데미의 하이 아트(high-art)와 포퓰라 아트(popular art)사이의 엄격한 경계를 완화시키려는 시도'로서 간주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건축과 도시문화에 대한 Robert Venturi의 이론과 유사하다.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러한 태도는 건축을 수반하는 맥락(context)에 집착하여 '문화'라는 맥락을 모색하려는 태도와 기존 도시맥락의 해독과 재합성을 시도하여 현대 도시맥락을 모색하려는 태도로 나타나 Robert Venturi, Robert A.M. Stern,

Charles Moore, Charles Jencks, Colin Rowe 등에 의해 대중과의 의사소통의 회복을 위해 장식성과 복잡성을 주제로 신사실주의가 대두하면서 물리적 맥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신-합리주의적 태도

근대 국제주의 건축이 추구한 보편성에 대한 태도는 전통이 깊은 유럽에서 Aldo Rossi, Mario Botta, Leon Krier, Maurice Culot 등에 의해 기존도시에 대한 도시맥락의 파괴를 회복하고 유럽 도시재건을 목적으로 신합리주의가 대두하면서 맥락주의적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태도는 A. Rossi의 유형에 입각한 신-합리주의적 사고의 역사원형에 대한 접근방법과 실무적으로는 실증적이고 색다른 감각으로 작품을 추구하는 영국의 L. Krier의 유형학의 원형과 유형을 추출하여 이를 건축디자인에 적용시키려는 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

Alan Colquhoun은 〈Essays in Architectural Criticism〉에서 '포스트-모더니스트들 가운데 독립된 집단이 있으며 그들 디자인이 다른 포스트-모던의 경향보다 고전적 디테일과 요소들에 대하여 상당히 내포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모던 클래식스(Classicists)'로 주장하였다. Robert A.M. Stern은 〈Robert A.M. Stern: Building and Projects 1981-1985〉에서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란 1938년에 출간된 역사가인 Arnold Toynbee의 〈A Study of History〉에서 15세기 이후 서구 문명의 다원시대와 모더니즘의 문화적 상대성을 기술하기 위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고 기술하여 모더니즘을 비평하고 건축 미의 본질이 '풍부한 기억과 빛아래서의 형태 조작'이라고 주장하면서 건축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과거와 전통의 연계속에서 질서를 추구하여 자아(ego)를 토대로 한 장소와 프로그램에 맞는 접근방법'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현대건축의 이론적 경향은 인간에 대한 인식론적 모델을 전통과 역사 및 대중성을 가미시킨 시각적 상징성과 인간의 실존적 의미를 토대로 한 질서와 구조 의미를 부각시켜 보다 유기체적 모델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Ⅲ. 현대건축의 표현양상

1950년대 후반부터 전개된 모더니즘에 대한 비평은 주로 인간을 주제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대건축의 표현양상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인공환경의 구성을 자연보존 방법과 자연 원리를 연구하여 자연을 더욱 동적인 관계로 주시하려는 자연의 근본이념에 대한 순응적 추세와 둘째 주체로서의 인간을 모델로 하여 인간요구에 대한 개념을 규명하려는 경향과 객체로서의 환경을 인간 인식에 적합하도록 구성시키려는 추세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자연·환경에 대한 표현

현대의 자연·환경에 관한 문제는 모던 시기부터 체험된 역사적 환경파괴, 자연환경의 오염, 무계획적 개발 등으로 심화되었다. 모더니즘의 주창자들은 자연환경이 지닌 목가적 분위기를 그들의 건물 정원에서 통합시키고 건물 형태속에서 다양하게 전개시켜 자연환경과 건물의 대비를 의도적으로 추구하여 오브제로서의 건축을 지향하였다. 그 결과로 나타난 시각적 지루함과 자연환경의 파괴는 현대비평의 근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근대시기에 파괴되어지는 자연에 대해 주변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화하려는 태도가 Frank Lloyd Wright, Hugo Häring, Alvar Aalto 등과 같은 일부 지역적 건축가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그 시대의 주류로서는 형성되지 못하였다.

Brent C. Brolin과 Umberto Colombo

그리고 조경학 분야의 John O. Simonds 등은 제2차대전 이후 나타난 환경파괴와 자원고갈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물리적 환경 조절상의 문제를 근대건축의 결점으로 기술하고 생태적 문제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후세계에 나타난 건축적 추세는 개인주의를 무한한 새로운 경험과 다양성의 시각에서 평가하므로써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회에 적합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 유기적 건축가들과 환경론자들에 의해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대의 환경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상호 관련연구회 형식인 유럽에서의 Architectural Psychology Conference와 북미에서 Environmental Desig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상호 관련연구의 간행물 형식인 Design Methods and Theories, Design Studies, Environment and Behavior 등이 간행되어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건축적 표현으로는 Richard Neutra가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실 배치와 건물을 구성한 Santa Barbara의 Tremaine House (1948), F. L. Wright가 건물표면을 내열 단열유리로 구성시켜 무질서한 외부 환경과의 차단과 내부 중정공간의 마련으로 사무소 건축의 매우 개별적 다양성을 지니게 한 Wisconsin주의 Johnson Wax Company 빌딩(1950),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는 F. L. Wright의 후계자들에 의해 추구되어져 Paul Schweilcher가 Wright의 Taliesin West 이미지를 반영하여 디자인한 Upton House, Bruce Goff가 주변환경과 결합한 소재구사와 천창채광에 의해 디자인한 Oklahoma주 노만(Norman)의 Barvinger House(1950), Paolo Soleri가 황량한 사막대지에 미국인들의 낭만적 해답을 표현하여 디자인한 Desert House(1952), Herb Greene이 주택의 웅크린 모습을 대초원에 내려앉은 거대한 까마귀로 과감히 표현하여 기후와 경관에 조화된 건물을 디자인한 자신

의 주택(1961) 등에서 이러한 양상을 찾을 수 있으며 유럽의 경우는 A. Aalto의 Vouksenniska교회(1958) 등과 Hans Scharoun의 Berlin Philharmonics(1963) 등과 같은 그들의 후기작품과 계승자들의 작품에서 찾을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현대사회에 있어서 70년대 초반 과잉생산으로 나타난 경제위기와 1차 오일쇼크 이후 지구 상의 천연자원의 고갈은 대체 에너지원의 개발과 대체 생활양식을 모색하려는 두 진영으로 나타났다. 전자의 경우는 정부의 지원으로 수력, 태양력 등의 실험으로 전개되었으나, 에너지 보존을 실패함으로써 생태적 위험성이 높은 원자력 산업의 근시안적인 분야에 집중되었고 후자의 경우는 자연형 태양주택과 폐기물 활용 등의 소규모 일반주택의 폐기물 활용 계획안(Arizona의 폐기물 활용 주택)으로 제시되어 단일 문제와 에너지 절약책인 녹색운동 사업이 건축에서 필연적인 과제로 인식되어 여러 가지 대안(Toronto의 에너지 실험 주택)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위기와 자원고갈을 인식하여 지역소재를 활용한 디자인 형태를 구성시키려는 노력이 현대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의 건축가들 중에서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Edward Gunts는 1990년대를 녹색운동의 전환점으로 규정하고 "1970년대의 지상 디자인 운동으로 나타난 태양력의 쉼(shed)와는 달리 오늘날의 녹색 계획안은 계몽된 의퇴인과 정부 규제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증가하므로써 배치계획에서부터 소재선택 그리고 에너지 효율의 기술공학을 활용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일상적인 수행으로 나타나게 하여 천연자원을 절약하고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소재와 첨단 개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추세"⁶⁾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자연·환경에 대한 현대건축의 표현은 물리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배치 및 공간계획에서부터 소재선택과 에너지 효율성의 디자인 구성으로 전개되어 자연이나 주변환경을 건축과 통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인간인식에 대한 표현

1950년대 후반 부터 전개된 현대건축의 또다른 표현은 인간의 본질적 의미와 요구에서 출발하여 시각적 단순성보다는 상징성, 공간의 균질성보다는 개체성과 장소성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Robert Venturi, Charles Jencks, Brent C. Brolin 등은 근대건축이 취해온 시각형태의 문제를 직각의 단순한 상자형 건물이 지닌 시각적 단순성과 지루함 등으로 들고 이것을 그 시기 운송수단의 발달로 나타난 속도감을 건축에 반영함으로써 체험자 관점에서 시각적 흥미의 빈약과 부재로 나타나 미적 불만족의 원인으로 주장하여 시각형태의 주체인식 문제를 주장하였고 Christian Norberg-Schulz, Roger Trancik 등은 인간의 근본적 실존요구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모더니즘 건축이 지닌 문제점을 물리적 균질의 보편적 공간양상으로 들고 '개체성과 장소성의 결핍과 의미의 부재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여 실존적 의미의 대안들을 간략한 구조에 의해 제시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자본주의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풍부한 창의성을 표현하려는 양상이 미국과 유럽건축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 전후 기술지도자 육성을 시급히 깨달은 정부와 사업가들에 의해 초대된 우수 건축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건물로는 A. Aalto의 MIT 공과대학 기숙사 건물(1949)과, 헬싱키의 공과대학 강당(1965), Eero Saarinen의 예일대학교 Skate Rink(1955), Louis I. Kahn의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리차드 의료연구센터(1961), Le Corbusier의 하버드 대학교 시각예술센터인 Carpenter Center(1963), Paul Rudolph의 예일대학교 예술건축학부 건물(1963), 등을 들 수 있으며 1960년대에는 활발한 경제성장으로 전후의 내핍과 회복의 시기를 맞이하여 국제주의 양식의 유리재료와 형태상의 특이성이 결합되어 기념비적 성격을 지닌 James Stirling의 Leicester대학교 공학부 건물(1963)과 Cambridge대학교 역사학부 건물(1968) 등이 나타났다. 사무소 건축의 경우

는 戰後부터 1960년대 말까지는 건축공간이나 형태보다는 거대한 높이나 긴 스패ן(span), 유리와 금속과 같은 소재 사용으로 구성된 건물이 사회적 선호를 받았으나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건축 디자인에서의 과학화 운동이 실패로 나타나게 되어 각 층에서 개방되고 외부 공용공간과 넓은 프라이버시 공간디자인의 분화를 확보함으로써 도심지역의 외부환경이 지니는 삭막한 분위기를 고려하여 자체의 중심공간을 지닌 점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로는 박스(Box)형태의 변형인 Gio Ponti와 Pier Luigi Nervi가 이태리 밀라노에 건립한 Pirelli Tower(1956), Revell과 Parkin이 캐나다 토론토에 건립한 시청사(1965)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현대건축에 있어서 모더니즘의 엄격한 형태에 대한 대안으로 관심 영역을 감각적 건축으로 전환시킨 경향은 핀란드의 A. Aalto 후기작품, 미국의 Louis Kahn, Robert Venturi 그리고 Charles Moore 등의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로는 Robert Venturi가 Philadelphia에 건립한 노인주거 계획안인 Guild House(1960)의 기호, Charles Moore가 New Orleans에 지역 공동체의 소속감과 시각자의 체험공간과 고전형태의 인식을 반영하고 역사적 요소들을 도입하여 전체적인 건축환경을 구성한 Piazza d'Italia(1980)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결국 인간 인식에 대한 현대건축의 공통된 표현은 역사, 시각예술, 주변 도시환경 등으로 부터 다양하게 차용하여 물리적 레이아웃과 사회적이고 상징적 요인들의 결합으로 나타나 1970년대 중반까지는 신-고전 양식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1980년대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에서는 인간의 감각적 만족을 성취시키기 위해 전통과 건축, 예술과 건축, 아방가르드의 추구 등을 통해 개별성 표현을 주안점으로 다루고 있다.

3. 문제점

본 장에서 살펴본 현대건축의 표현양상은

모더니즘의 전통과 역사를 거부하고 고전, 예술, 맥락 등을 인용하려는 공통점을 지니거나 접근방법에 있어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근대시기의 역사관에서 볼 때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중언어의 고전 코드는 본래 신-고전주의가 중산계층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현이었고 교양있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해독할 수 있는 엘리트주의적인 내용이므로 대중적인 문제로는 볼 수 없으며 더욱이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의 특성은 모더니즘의 극복과 부정적 시각에 대한 공통된 관심을 표명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나타내기 보다는 실제로 애매하고 모순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Bill Risbergo는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운동이 표방한 엄격한 원리보다 자유분방한 표현주의와 풍요로움, 화려함 그리고 기이한 것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을 뿐 기본적인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⁷⁾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현대건축을 특징지우는 불확실성의 표현은 이러한 상황에서 전개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둘째, 1980년대를 기점으로 전개되고 있는 건축의 다원적 상황은 인간의 미적 즐거움을 다소 난해하게 만들고 있고 인간을 주체로 한 접근방법이라기 보다는 다원론적 접근방법을 순수 형태의 시각에서 추구하려는 자체 논리적 문제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현대건축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접근방법으로는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경향의 표현들은 다소 자기-중심적 표현으로 이끌어져 자연·환경에 대한 관계에서 통합성이 부족하고 자연·환경의 영향을 보편화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현대건축 이론가들의 다양한 의미론의 성격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그들의 논리 전개에 있어서는 선형적 인식구조나 경험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에 대한 주장을 전개시키고 있다. 이러한 각각의 의미론 주장은 대중과의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대중 인식에 기반을 둔 수사학적 전통을 재현함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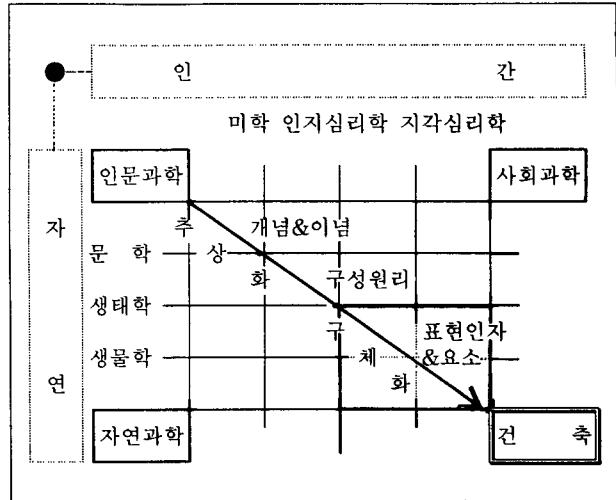
로써 환경을 상징적인 것으로 디자인하여 대중들의 욕구와 내부생활, 거주자와 건물 목적을 표현하는 파사드의 시각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들의 접근방법은 역사성과 대중성의 의도만으로 제시한 채,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한 절충적 인용을 통한 콜라주(collage)와 병치의 수법만으로 가능하게 하였고 건물과 여러 시기 기념비에 숨겨진 연상적 의미를 체험자의 시각 만족과 연계시키고 있다. 인간은 잠재의식의 상태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 대한 주장은 체험자의 인식구조와 연계하여 상징에 대한 구성을 인식구조와 질서를 토대로 전개시켜야 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특히 이론가들의 의미론의 경우에 있어서 C.Rowe가 <Collage City>에서 전개시킨 이론은 도시구조의 충돌하는 부분을 콜라주를 통해 재구성하였지만 단지 Descartes의 방법론적 회의론을 토대로 근대건축의 모든 양상에 대해 이론적 검증과 실제 작업을 통해 의문을 제시하고 패러디임(paradigm)의 회의로 전개시켜 명확한 제시를 못했으며 Aldo Rossi가 <The Architecture of the City>에서 전개시킨 이론은 도시를 이론의 출발점으로 채택하여 프랑스 계몽주의 이론가들의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도시 전체성을 단편들로 분해하여 고정된 모델로서의 유형 개념을 통하여 분류함으로써 이상 세계에서 작용하는 원형 개념을 통하여 의미 회복을 주장하지만 인간 생활과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전체성에 대한 부재로 볼 수 있고 Robert Venturi가 <Complexity and Contradiction in Architecture>에서 의미의 회복을 위해 채택한 방법은 일상생활을 출발점으로 어떤 주어진 일상적인 생활상황에 나타나는 내용을 발견하고 과거 경험의 기억에서 결정되는 도상적 의미와 내부력과 외부력의 상호작용에서 유래되는 공간적 의미에 대하여 주장하지만 그러한 힘과 기억의 본질을 설명하지 못하는 논리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

IV. 결 론

1) 본고에서 살펴본 모더니즘의 접근방법은 시대정신의 표현을 인간의 보편성·공간의 균질성·형태의 단순성 등을 주안점으로 발전시켜 왔으나 인간과 사회문제를 기계미학과 합리적 방법의 틀 속에서 인식하여 인간과 건축의 실제적 관계를 형성하는 체험공간과 형태문제를 기계운동과 정량적 관계로 다루게 됨으로써 개체성, 상징성, 소속감 등의 인간의 본질적 의미가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현대건축의 표현 양상으로 나타난 자연·환경과 인간인식에 대한 표현은 단편적인 접근방법으로서가 아니라 통합적인 방법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본고에서 살펴본 현대건축이론이나 작품에서 전개되고 있는 접근방법은 구체적인 문제의 접근방법이기 보다는 단편적인 시각 상의 유희나 파사드 위주로 전개되거나 논리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진정한 대중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부터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이나 아방가르드 계열은 절충주의적 태도나 폴라쥬 기법 등으로 의미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로 나타나고 있다.

3) 좋은 건축의 디자인은 건축가의 디자인 인식과 그 디자인을 사용하는 사용자 사이의 감각적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건축적 태도는 건축에 대한 사용자의 체험을 인식하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건축가의 개별적 표현을 결합시키려는 인본주의와 디자인 창조성의 관점을 의미하므로 현대건축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간 본질에 대한 문제를 자연·환경을 다루는 분야와 인간인식을 다루는 분야에서 추구하여 현대건축의 다원론과 복합성이 지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 구성체계의 정립과 그 표현에 관한 연구가 현시점에서 더욱 타당성을 부여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2)



(그림 2) 통합적 구성체계의 다학문적 접근 방법

참 고 문 헌

- 1) Le Corbusier, "Towards a New Architecture", 장성주·장성수 共譯, 서울: 태림문화사, 1987, p.198.
- 2) Le Corbusier, "Creation is a Patient Search", (Translated by Palmes, J.), New York: Praeger, 1960, p.155; F. Choay, "Le Corbusier", New York: Braziller, 1960, p.19.
- 3) Christian Norberg-Schulz, "Architecture: Meaning and Place", New York: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s, 1988, p.185.
- 4) Kenneth Frampton, "Modern Architecture: A Critical History", 정운철·윤재희 共譯, 서울: 세진사, 1988, pp.149-158.
- 5) C. Ray Smith, "Supermannerism: New Attitudes in Post-Modern Architecture", New York: E.P. Dutton, 1977, pp.23-24.
- 6) Bill Risebero, "Modern Architecture and Design", 박 두용·이 근택 共譯, 서울: 기문당, 1990, p.243.
- 7) Bill Risebero, "op.cit.", p.272.